



홍대 입구의 진화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아티스트와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은 아마 홍대 입구가 아닐까? 하지만 홍대 입구는 맛집만 많고, 정작 문화 공간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다. 서교호텔 건물을 새롭게 변신시킨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RYSE, Autograph Collection)은 이러한 문화적 갈증을 해소해주는 공간이다. 무엇보다 지하에 우리나라 파워 갤러리 중 한 곳인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라이즈 호텔'이 오픈해 변화의 힘을 보탤다. 이로써 아라리오 갤러리는 천안, 서울 삼청동, 중국 상하이에 이어 네 번째 전시 공간을 열게 된 것. 주연화 아라리오 디렉터는 쉬지 않고 달려온 아라리오가 홍대입구에 오픈하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표현했다.

"젊음과 실험의 공간인 홍대 거리에서 다시 '새로움'과 '이방가르드'라는 정신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국제적 신진 작가들의 전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라이즈 호텔 외벽에는 아라리오갤러리 권오상

작가의 '릴리프' 시리즈가 전시되어 있다. 세로 2m · 가로 21m의 거대한 이 사진 조각 작품은 작가의 전작에 등장했던 이미지 혹은 새롭게 수집한 동시대의 상징으로 홍대 입구의 예술적 감성을 반영하고 있다. 아라리오와 라이즈 호텔은 조만간 협업 작품을 선보일 계획도 가지고 있다. (www.arariogallery.com)

라이즈 호텔 자체도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호텔의 로비에서 4층까지 연결된 작품은 권경환 작가의 설치 작품. 권 작가는 철근을 활용해 기하학적인 구조를 탐색하는 조각가로, 라이즈 호텔 브랜드와 스트리트 예술의 자유분방함을 강조하고 있다.

4개의 아티스트 스위트는 설치미술가 박여주, 사진작가 로랑 세그리서, 페인팅 아티스트 찰스 문카 등이 각각 다른 콘셉트로 꾸며 시선을 모은다. 또 20층의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 스위트는 김영나 작가의 그래픽 디자인으로 완성된 벽과 예술 작품들로 채워져 파티에도 적합하다.

로비에는 샌프란시스코 타르틴 베이커리의 메뉴를 맛볼 수 있는 인기 카페 '타르틴'이 입점했다. 4층 태국 레스토랑 '롱침'은 미술랭 스타 셰프 데이비드 톰슨이 이끄는 곳으로 한국에 처음 진출했다. (www.rysehotel.com)

- 1 카페 '타르틴'이 입점한 호텔 1층
- 2 로비에서 4층까지 연결된 권경환의 작품
- 3 15층 루프탑 바 & 라운지
- 4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라이즈 호텔 개관전 '기억하거나, 망각하는'
- 5 외벽에 설치된 권오상의 '릴리프'

서울 사람도 잘 모르는 '서울의 새 명소'

당분간 해외 여행을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서울에 신선한 복합문화공간이 줄줄이 개관하고 있으니 말이다. 서울 사람들도 아직 잘 모르는 '뉴 플레이스'들은 이국적 풍광과 문화의 결합으로 새로운 상징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글 이소영 프리랜서 기자



후암동으로
떠나는
'피크닉'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가 전시회를 한다고? 남산 바로 아래에 자리 잡은 '피크닉'에 가면 류이치 사카모토가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에도 일가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 건너편 골목의 울창한 느티나무 사이로 보이는 건물이 바로 '피크닉'이다. 1970년대 제약회사로 사용되던 낡은 주황색 타일 건물이 리노베이션을 거쳐 재탄생한 것인데, 그 모던함이 찬사를 자아낼 정도다. 제약회사의 경비실은 유머러스하게도 그대로 남겨 놓아 미소를 자아낸다. 건물 외관에는 소년, 청년, 중년의 류이치 사카모토가 피아노 치는 모습의 사진이 걸려 있다.

1, 3 가장 류이치 사카모토가 내한해 아티스트 토크를 가졌다. 백남준과도 뉴욕에서 교류했던 그의 숨겨진 감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놀랍다. 2 후암동의 오래된 제약회사 건물을 개조한 '피크닉'은 서울의 자연과 도심의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매력적 로케이션에 위치하고 있다.

입구에는 유리 온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농부인 '미명 농장' 박미영 대표가 3층 레스토랑 '제로 콤플렉스'에 싱싱한 야채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것.

1층에는 카페와 아트숍, 전시장이 있다. 그 유명한 '헬카페'와 협업해 만든 카페는 커피, 밀크티, 당근주스 등이 맛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제로 콤플렉스'의 소믈리에가 내려와 내추럴 와인과 타파스를 판매하는 라운지 클럽으로 변신한다. 직장인의 퇴근 시간을 고려해 전시는 매일 9시까지 열린다. 관람과 식사, 휴식까지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시 '류이치 사카모토: 라이프 라이프(Life Life)'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이어진다. 지하 1층에는 '세 개의 흐름이 교차하는 곳'이라는 3채널 미디어 작품이 있다. 유성준 작가가 류이치 사카모토의 영화 OST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영상 작품이다. 류이치 사카모토는 영화 OST '마지막 황제'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레버넌트' '남한산성' 등으로도 유명하다.

2층에는 백남준과 함께한 '올 스타 비디오(All Star Video)'의 영상과 사진들이 있어 반갑다. 3층은 그야말로 전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 설치 작품 '라이프-플루이드, 인비저블, 인오더블'(LIFE-fluid, invisible, inaudible)이 감탄을 자아낸다. 관람 후에는 4층 루프탑에 올라가 남산의 푸르름과 서울 도심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은 그곳에서도 계속 흐른다. (www.piknic.kr)

용산 랜드마크
'아모레퍼시픽그룹
신사옥'

- 1 루프 정원에서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다.
- 2 라파엘 로자노헤머의 작품 '블루 선'
- 3 '헬레나 플라워'는 갤러리와 에어 플랜트를 갖춘 공간 구성으로 시선을 사로 잡는다.
- 4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디자인한 신사옥.



용산에 두등실 달항아리가 떴다.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이 개관한 것. "달항아리는 한국 예술의 정점입니다. 절제된 백자의 아름다움이 이 건물의 모티브죠. 시끄럽게 변화하는 용산에서는 고요함을 간직한 건물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6월 15일 오픈닝 파티 참석 차 내한한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이 미군 부지가 용산공원·업무 지구로 변신하고 있는 새로운 용산의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산역과 직접 연결되는 이곳은 아모레퍼시픽 본사이자 미술관, 라이브러리, 카페, 레스토랑, 꽃집, 아린이집 등을 갖춘 다목적 공간이다. 1층



의 카페 2곳과 로비는 젊은 디자이너 이광호가 인테리어를 담당했다. 이 작가 특유의 뜨개질 기법으로 만든 형형색색 의자들이 로비를 채워 신사옥에 대한 아모레퍼시픽의 열정을 짐작하게 한다. 카페 두 곳의 천정 조형물도 이 작가의 것으로 신선하다.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서는 멕시코 출신 라파엘 로자노헤머의 전시 '디시전 포레스트'(Decision Forest)가 열리고 있다. 신사옥으로 대공과 소통하고 싶다는 아모레퍼시픽의 바람을 반영해 개관 전시는 관람객과 함께 만드는 인터랙티브 작품들로 구성했다.

"21세기의 일상에서는 첨단 기술의 진입을 피할 수 없기에 기술을 예술적으로 승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시 작품은 관람객의 맥박, 목소리, 지문, 움직임 등으로 움직이기에, 여러분의 참여가 없다면 작품이 완성될 수 없는 형식입니다."

로비에 설치된 라파엘 로자노헤머의 신작 '블루 선'(Blue Sun)은 태양 표면에서 받은 영감을 2만5천580개의 LED 전구로 구현한 작품. '펄스 룸'(Pulse Room)은 240명의 심장 박동 소리를 240개의 백열전구에 담아 빛과 소리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의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들었던 심장박동 소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사실 신사옥의 정점은 5층, 11층, 17층에 있는 정원이다. 붉은 지붕의 미군 기지와 용산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임직원 전용 공간이라 다소 아쉽다. (www.amorepacific.com)

1층의 '헬레나 플라워' 본점도 놓치지 마시라.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헬레나 플라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라워 숍. 도심에서 숲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식물들과 세계에서 수집한 화기 컬렉션이 방문객을 반긴다. 영화 '아바타'의 한 장면을 떠올리는 6m 높이의 에어 플랜트(공중에 매단 구조물)와 작은 갤러리가 특별하다. 레드 컬러의 갤러리 '꿈꾸는 화원'은 유승재 대표가 누구나 잠시 쉬어 갈 수 있도록 배려한 곳이다. 꽃 오브제 및 액자에 담은 사진 작품을 두고, 위층에는 시집, 소설, 인문학 책을 꽂은 책장을 설치했다. (www.helenaflower.com)

색다른 한남동을 산책하다 '사운즈 한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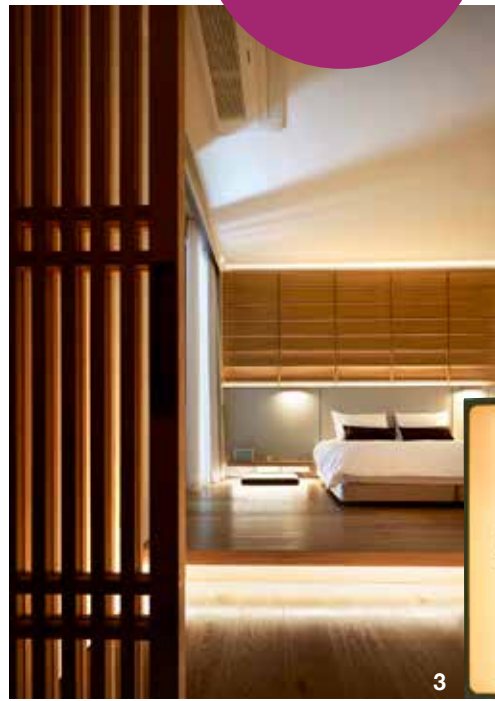
강북과 강남, 유행과 전통의 중간 지점인 한남동에 복합문화공간 '사운즈 한남'이 문을 열었다. 600평 규모에 다섯 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은 이국적 정취를 풍긴다. 1층 카페에 앉아 있노라면 마치 외국 리조트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낮은 건물을 다섯 동으로 나누고 높낮이도 다르게 디자인해 전체적으로 불규칙한 공간을 구성했어요. 광장, 골목, 중정 같은 장소가 곳곳에 만들어져 산책하는 재미도 있지요." 사운즈 한남을 운영하는 제이오에이치(JOH)의 김민식 디렉터는 현대인이 도심에서 기분 좋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한다. 문화 공간이 중심을 이루는 이곳에는 가나아트 갤러리가 '가나아트 한남'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했다. 개관전으로 신진 작가 장유희 전시회를 열었고, 7월 11일부터는 오수환의 드로잉 전시를 한다. 오수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은 결국 아

무것도 정의되지 않는 무(無)의 상태와 다름없다는 깨달음을 추상화로 선보이는 작가다. (www.ganaart.com) 또 미술품부터 빈티지 시계·주얼리까지 거래하는 세계적 경매회사인 '필립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선보였다. 필립스는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시계와 주얼리, 디자인 경매 한국 프리뷰를 이곳에서 진행한다. 개관과 동시에 최초의 한국 프리뷰를 했는데, 지금까지 필립스가 아시아에서 진행한 경매 중 가장 결과가 좋았다고, 유명 수집가 쉬어즈 컬렉션에서 출품했던 자오 우키 작품과 장 샤오강 경매 결과가 예상을 뛰어넘었다. (www.phillips.com) 호텔 같은 주거공간인 사운즈 레지던스 14채에는 이미 입주가 시작됐고, 북 바(Book Bar)는 오픈을 앞두고 있다. 카페, 베이커리, 레스토랑, 꽃집, 편의점도 갖추고 있어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기 좋다. (www.project-sounds.com)

1 세계적 경매회사 필립스의 첫번째 한국 사무소가 오픈해 프리뷰 전시를 가졌다. 10월 말, 11월 홍콩 경매를 위한 두 번째 서울 프리뷰 전시를 할 예정이다. 2, 3 가나아트 한남은 7월 11일부터 추상 작가 오수환의 드로잉 전시를 연다. 4 다섯 개의 건물로 작은 마을을 이룬 사운즈 한남 전경.



오리엔탈 무드 '오월호텔'



1 부티크 호텔이지만 수영장과 갤러리를 갖추고 있어 역삼동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잡한 도심 속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 2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고즈넉한 가든 전경. 3 디자이너의 김백선의 마지막 작품 오월호텔. 오리엔탈 감성의 디자인으로 주목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위의 네 곳 모두가 강북에 위치하고 있어 흥미롭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강남 역삼동에서 오픈한 오월호텔이다. 최근 국제적 디자인 매거진 '월페이퍼'(Wall Paper)에도 소개된 오리엔탈 감성의 부티크 호텔이다. 갑자기 세상을 떠난 디자이너 김백선의 유작으로, 수영장과 갤러리 '메이 스페이스'를 갖춘 재미있는 공간이다. 김백선은 대안공간루프, 덴마크 주재 한국대사관, 롯데월드 시그니엘 레지던스 등을 디자인했다. 메이 스페이스에서는 개관 전시로 유주주(UJUJU) 작가의 '모국, 어떠한 나라' 전시를 열었는데, 북한과 한국의 분단 상황을 스테인드글라스와 거울 등 다채로운 미디어를 이용해 보여줬다. 7월에는 조재영 작가의 전시가 마련된다. (http://owallhotel.com)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많은 이들이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멋진 곳들이 있으니 무리해서 갈 필요까진 없을 것 같다. 지루한 일상을 핫 플레이스 방문으로 재충전해보면 어떨까? 가끔은 여행처럼, 휴가처럼 하루를 보내보자. 먹고, 감상하고, 사랑하라(Eat, Enjoy, Love)! ♥